

“전국 시·군별로 지회 설립한다”

- 본회 정기총회시 지회 설립 요건 낮추기로 결정 -

지회 설립 요건 완화로 본회 회원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
본회는 지난 2월 6일 실시된 제 29차 정기총회에서 기존 20명의 지회 회원수 기준을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관 개정을 실시하고 각 시군별 지회 설립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확정했다.

본회 김수근 회장은 “기존에는 지회 설립 최소 인원이 20명으로 못 박혀 있어 지회 설립을 원하나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의 양록인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했다”고 밝히며 “지회 설립 최소 인원이 10명으로 확정된 만큼 각 시군 단위별로 지회를 창설, 회원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”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.



본회는 이미 지난해 말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, 지역 양록농가 현황 파악에 나섰으며 자료가 입수되는데로 시군별 지회 설립을 서두를 방침이다.

현재까지는 전국 160여 시군 중 50여 시군, 4천여명의 양록인 명단이 확보된 상태며 2월말까지 자료를 종합한 후 지역 양록인 명단을 통보해오지 않은 시군에 재차 공문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.

본회는 이 자료를 토대로 각 시군별 양록인들에게 공문 및 안내문, 회보 발송 등을 통해 지회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각 시군의 대표성 있는 양록농가를 방문, 지회 설립을 촉구할 방침이다.

김수근 회장은 “지방자치 시대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회 설립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이끌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, 지역 양록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동시에 본회에 있어서는 회원확보를 통한 자조금사업 기틀 마련 등 국내 양록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”이라 자신했다.

한편 지회 최소 회원수가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각 지회별 최소 연회비 또한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. 따라서 금번 정관 개정으로 지회 회원수 20명이 안됐던 몇몇 지회들은 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. 2003년도 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회 회원 5만원, 직할 회원 10만원이다. **한국양록**